

댐 이야기



01. 섬진강댐 이야기
02. 댐 유역 내 외래 어종 활용에 관한
판타방안 댐의 사례
03. 화천댐의 본래의 기능을 찾으려면

01.

섬진강댐 이야기



GS건설(주) 부장
심우섭
 wssshim@gsconst.co.kr

들어가기에 앞서

대담회지에 실리는 댐 관련 기사는 그동안 기술적인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내용 소개나 건설현장 소개 등이 뒤를 잇는 한편, 댐에 관한 인문학적인 소개는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인 것으로 보인다. 댐이 들어선 지역은 어느 한 곳 그 고장 사람들의 삶이 서려있지 않은 곳이 없고 땅과 물 또한 수려하지 않은 곳이 없을 터이며, 또 댐마다 그 필요성이 대두된 순간부터 개발과정을 거쳐 운영 중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댐과 지역사회가 함께 작용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댐을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는 아니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우선 섬진강댐을 다루는 것은 순전히 임실문화원과 케이워터 섬진강댐관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옥정호 이야기, 풍경을 담다”-부제: 섬진강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라는 화보집을 접했기 때 문임을 미리 알린다.

이 책의 사진과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서정적이어서 잘 만든 책을 이리저리 짜깁기하여 소개함으로써 오히려 원작에 누를 끼칠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미리 섬진강댐관리단 단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양해를 얻었음을 알리며, 덧붙여 K-water 섬진강댐관리단의 다음카페 “K-water 섬진강댐(옥정호)이야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이 카페에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들어가기

섬진강!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다.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팔공산 북쪽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운암에 이르러 정읍시와 임실군의 경계에서 아름다운 옥정호를 이룬다. 잠시 멈추어선 물길은 이어 순창·곡성·구례에서 남동쪽으로 유유히 흐르다가 하동을 지나 남해바다에 이르기까지 600리 물길을 이룬다. 섬진강의 상류인 임실군 강진면과 정읍시 산내면 사이에 50년 역사의 섬진강 댐이 있다. 섬진강댐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을 시작하여 8·15해방과 6·25전쟁 등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965년 12월 오늘날의 댐이 완공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방지는 물론 유역변경식을 통하여 수력에너지를 생산하고 아울러 동진강으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호남평야의 젖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정든 고향을 두고 떠나야 했던 수몰 이주민들의 아픔이 서려 있다. 여기에 수록된 사진들과 이야기는 그동안 섬진강댐과 옥정호에 얽힌 이야기이며 이주민들의 삶의 역사이다.

첫째 이야기

섬진강댐 역사를 시작하다



가뭄에 드러난 운암제(구댐) 및 준공기념비

운암제(雲岩舊댐)

섬진강댐이 건설되기 이전 일제강점기에 건설한 운암제가 있었다. 전라북도를 서남류하여 황해로 흐르는 동진강은 유역의 대부분이 광활한 평야이며 하류 해안선 일대는 간척이 가능한 넓은 평야지대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동진강의 자체 유량이 적어 관개용수가 항상 부족하였기 때문에 수자원이 풍부하며 지형이 높은 섬진강의 물을 유역변경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인 1925년 8월 동진수리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11월 동진강 유역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운암제 공사를 착수하였다. 운암제는 1928년 12월에 준공하여 이듬해인 1929년 4월 운정리 운암취수구와 방수를 통해 동진강 유역으로 통수하였으며 3년 뒤 1931년 10월 칠보취수구 및 6.2km 도수터널을 뚫어 유효낙차를 이용한 남한 최초의 수력발전소인 운암발전소를 건설했다.

섬진강다목적댐

기존 운암제는 저수량이 적어서 충분한 발전량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력생산을 위한 저수량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자 1940년 4월 운암제 하류 2km 지점에 섬진제를 계획하고 착수하였다. 그러나 1944년에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착공 후 4년여 만에 1차 공사 중단이 되었고 1948년 8월에 재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시공 중에 6·25전쟁으로 또다시 중단되었다. 섬진강댐은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61년 8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당시 건설부에 의해 비로소 재착공이 이루어졌고, 1965년 12월 20일 준공되었으며 상류의 운암제는 이로 인해 수몰되었다. 대한민국 시련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탄생한 섬진강댐은 건설 이후 하류지역의 홍수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유역변경식으로 호남평야와 계화도 간척지를 비롯 29,860ha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하루 9만 톤의 생활용수(정읍, 김제) 및 연간 1억2천만kw의 수력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준공 후 반세기 동안 수자원개발의 선두주자로 이바지해 온 섬진강댐은 이제 친환경적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2015년까지 총사업비 약 2천여억 원이 투입되어 보조여수로 건설 및 수문 등 댐시설을 보강하여 극한 홍수에



1970년 섬진강댐의 전경



대비하고 댐하류지역에 연간 6,500만 톤의 용수 공급량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낙후된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물문화관 건립,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편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댐 운영이 정상화되면 수몰지 내 거주지역이 물에 잠기게 됨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거주민 이주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운암 이주단지가 조성되었고 운암면사무소가 이전하였으며 235세대가 새 정착지로 이주 중에 있다.

둘째 이야기

운암사람들 이야기



옛 운암면 직원들



운암국민학교의 운동회 모습



하운암 출장소



옛상운리

수몰 전 운암 사람들의 살림은 늘 궁핍했지만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했다. 마을 입구를 지키며 서 있던 늙은 정자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고 동네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였으며 저녁 무렵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평화로웠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올 때에 고향은 삶의 동지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댐이 들어서면서 수몰민들의 애환이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진강 유역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운암제를 건설하였으나 수몰민 보상금은 통장과 증권으로 주었고 이것들은 훗날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민의 이주는 1962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 실시되었고 수몰민은 2개군 5개면에 걸쳐 총 2,786세대 19,851명에 달했다. 수몰민의 애환은 계속되었다. 조상 대대로 지키고 내려온 삶의 터전이 물속에 잠기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보상다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보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후 두 번째 보상이라는 형식적인 이유와 당시 우리나라도 아주 가난한 시절이라 정상적인 현금보상 대신 계화도 간척지 등을 새로운 정착지로 제공하였다. 정부는 세대당 가족 수에 따라 간척지에 1~2ha 농지를 분배하고 10년 동안 이농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농지분배증(딱지)을 나눠 주었다. 그러나 약속했던 이주 예정지(계화도, 동진폐유지, 반월폐염전) 공사는 댐 준공 후 10~15년이 지나야 비로소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몰민의 상당수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재정착하고 말았다.

당시 정부는 과감한 국가 정책으로 댐을 건설하였으나 이주 예정지인 계화도 간척지는 10여 년 동안 바닷물의 염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이주민들은 실망하여 옛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정부에서 배당받은 집과 논을 부안 원주민들에게 싼값으로 팔아 넘기고 상처투성이로 귀향한 사람들이 많았다. 수몰지역에 거주하던 정읍지역민 120여 세대는 당시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폐염전부지로 이주해 농사를 지으며 자리를 잡았으나 현재의 안산시 고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1965년 전북 임실군 섬진강댐 이주민들이 처음 이주한 호수공원에 섬진강댐 이주민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잔 신도시 조성사업에 편입되었으니 당시와 지금의 사업주체는 다르지만 이래저래 섬진강댐과 K-water와의 인연은 깊기만 하다. 지난 2012년 5월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 내에 “섬진강댐 수물민 이주민 옛터” 기념비를 설치하여 이주민의 망향의 한을 달랬는데 안산시는 부지를, 임실군은 비석을, 그리고 정읍시는 소나무를 기증하는 등 3개 시군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수물민들이 현지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농토는 이미 거의 다 수몰이 된 후라 먹고살기 위하여 불법개간 등으로 콩이나 조, 옥수수, 고구마, 고추 등을 심어서 근근이 생활하는 화전민이 되었다.

당시 운암에는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마을과 집들 그리고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던 오막살이들은 물속에 들어가 있었으며, 부서지지 않은 집의 지붕이 물 위에 떠 있고 마을 주변에 서 있었던 감나무들은 그 끝머리만 내놓고 있었다. 교통수단은 없어졌고 좁고 험한 산길을 걸러가거나 나룻배를 이용하였고 전기, 전화, 약방, 보건소도 없는 어렵고 가난한 생활은 계속되었다. 다행히도 운암면에는 6개소의 초등학교와 분교가 벽지 학교로 지정되어 학생들은 육성회비가 면제되었고 점심때에는 급식 빵을 먹었다. 그 빵을 배급받아 먹기 위하여 미진학 어린 동생들까지도 학교에 데리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때는 그랬었다. 옥정호를 바라보니 지난 삶이 추억으로 떠오른다. 이제 고향은 갈 수 없지만 그동안 수물민들의 애환은 책과 이야기로 전해질 것이다.

셋째 이야기

꿈에도 그러워라! 내 고향



운암면 소재지

다시 보는 운암 옛마을

임실군의 북서쪽에 위치한 운암면은 두 번에 걸친 댐 건설로 호수를 이루고 전체 면적 중 70% 이상이 산으로 둘러싸여 섬이 아니면서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었다.

운암면은 상류 신평면 하가마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섬진강 유역에 2만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운암면 곳곳에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지석묘와 석관묘가 많이 발견됨으로써 이곳이 삼한시대 이전부터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전쟁에서 신라군이 백제를 침범할 때 섬진강 상류에서 하천을 따라 운암을 경유하여 부안까지 오고 갔다는 사료가 있다. 조선 시대에는 고흥반도에서부터 순창을 거쳐 전주까지 다니는 교통 중심지로서 많은 선비들이 운암을 경유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운암면은 조선 말기까지 상운암면과 하운암면이 따로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에 운암면으로 통합하였으나 행정적 지리적



운암면 소재지

여건이 어려웠던 1965년 7월 5일 하운암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암, 청운, 마암, 금기, 운정리 등 6개 리를 관할하였다.

운암면은 두 번에 걸친 댐건설로 수몰되었으며 정든 고향을 떠나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아픔과 애환이 곳곳마다 서려있다.

또 다른 삶의 시작 - 운암면 소재지

2015년도 섬진강댐 운영 정상화로 인하여 이주단지로 이전하게 될 구 운암면 소재지 현장에 가다. 수몰민의 애환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넷째 이야기

옥정호 풍경을 담아내다

운암에 대해 『흔불』의 작가 최명희는 ‘구름이 몸을 이루면 바위가 되고 바위가 몸을 풀면 구름이 되는 곳’이라고 하였다. 운암강 아침 물살 위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준령의 산 어깨를 감싸안으며 안개와 구름이 산과 강의 정령을 깨워 수련수련 모이고 흩어지는 신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운암이라는 지명 속에는 고유어로 풀어 구름바위 그리고 그것의 흩어지고 모이는 유장한 세월의 더께가 함의되어 있는 듯하다.

운암이 되기 위해서는 구름을 풀고 모으는 물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물길의 이름이 바로 운암강이다. 운암강은 지금은 보통 섬진강으로 불리고 있으나 물길도 가는 곳마다 빛깔도 모양도 달라, 덕태산, 팔공산 자락의 물들을 모아 흐르는 물길은 진안, 성수를 지나며 임실 관촌에 와서 임실천과 오원천의 물을 모아 운암강에 이른다.

운암강 물길은 다시 강진의 갈담천, 순창의 적성강을 지나 섬진강에 이른다. 따라서 이곳의 물줄기는 오원천의 물과 경각산 줄기와 백련산 줄기의 산자락들로부터 모은 물을 합하여 섬진강을 이룬다.

붕어섬 (외얏날)



붕어섬 (외얏날)

외얏날은 상운암 입석리와 용운리 사이에 있는 산자락이었다. 섬진강댐이 축조되어 운암강이 옥정호로 바뀌면서 이곳은 육지 속의 섬이 되었다. 국사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마치 한 마리 금붕어가 화려한 지느러미를 펼치고 헤엄치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붕어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지역이기도 하다. 잔잔한 수면과물안개로 절경을 이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특히 사진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곳이다.



옥정호 순환도로 (국사봉로)

옥정호 순환도로 (국사봉로)

파란 하늘을 이불로 삼고 푸르른 숲과 드넓은 호수를 낀 그야말로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가 옥정호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옥정호의 국사봉로 드라이브코스는 ‘한국의 아름다운 100선’ 중 18번째로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가을 햇빛이 반짝이는 물결, 산자락이 투영된 호수면, 안개에 휘감긴 봉우리 등은 말 그대로 한 폭의 수채화이다.



국사봉

국 사 봉

국사봉 정상에 오르면 옥정호가 한눈에 보인다. 서로는 오봉산의 다섯 봉우리와 호남정맥이 용틀임하고, 동으로 운암의 들녘과 그 너머로 마이산, 남으로는 옥정호 주변에 바라산, 오봉산, 묵방산, 내래산이 우뚝 솟아 있다. 북으로는 모악산, 경각산, 고덕산의 연봉이 장관을 이룬다. 새해 아침에는 해맞이 축제가 열리며 국사봉 산행 겸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과 사진작가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맺 음 말

섬진강댐은 도시에서 그다지 먼 곳에 있는 댐이 아님에도 K-water에서 관리하는 댐 중 대표적인 오지로 꼽혀왔다. 예로부터 폭설이라도 오면 이삼일씩 교통이 끊기는 곳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이제는 교통이 확연히 좋아져 전에는 두 시간씩 걸리던 전주가 이제는 삼사십 분 거리로 단축되었다. 또 더 깊은 산 속에 많은 신규 댐들이 생겨났으니 이제는 오지라는 인상을 벗을 만도 한데 여전히 섬진강댐이라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속한 느낌이 난다. 사실 관리단 건물이 간신히 자리하고 있는 댐 좌안 급경사 비탈면을 보면 아직도 열악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겨울을 지나고 봄날 햇살아래 고요 속에서 들릴 벌소리 새소리를 상상해보면 개발에서 한참 벗어났던 이 지역이 옛날에는 뒤쳐진 것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그 소외가 오히려 청정지역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하여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재개발과 함께 한 번 더 도약하는 섬진강댐이 지역민과 함께 오래오래 만들어갈 역사를 기대해 본다.